

주택건설 ‘정보센터’의 수립과 역할

이 규 성 |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세상은 마야흐로 정보시대가 되었다. 정보의 생산과 가공, 그 이용이 국력과 직결되고 개인의 실력도 좌우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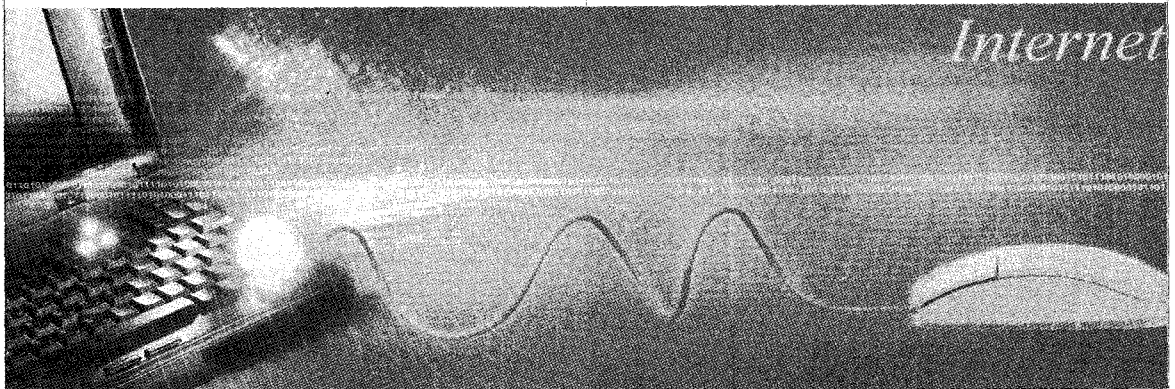
주택건설부문도 마찬가지로 정보의 집적과 확산이 전공자나 비전공자 모두에게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화의 물결은 가상공간을 이용한 인터넷이 도입 보급되면서 더욱 상승물결을 타고 있다. 인터넷은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출입의 자유로움이 보장되기 때문에, 정보의 집적과 확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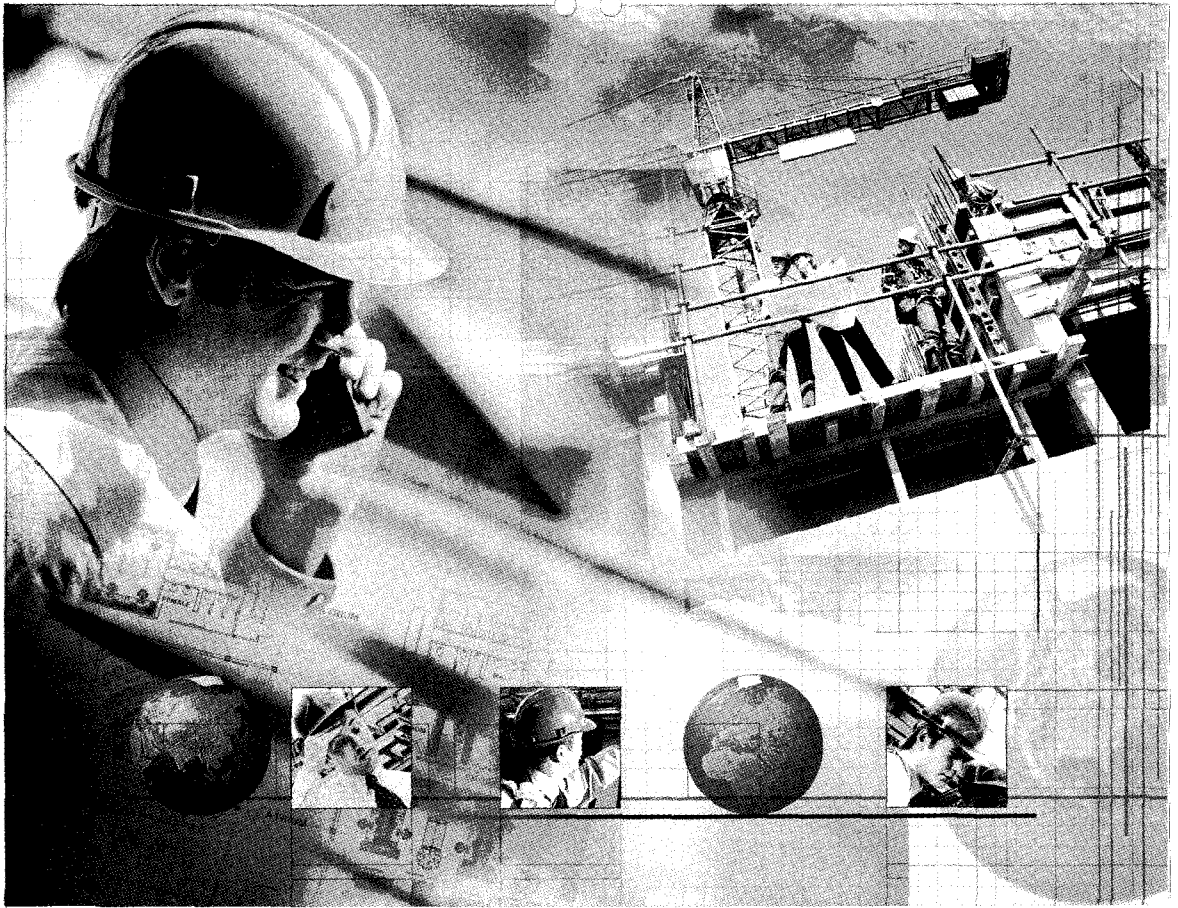
주택건설분야는 이론과 실제기술이 같이 필요한 분야인데, 전공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많은 정보가 생산되고 있고 이를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세계에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

가 단순하고 부분적 정보가 아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의 ‘정보센터’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인터넷의 바다는 넓고도 넓다. 그러나 그 바다의 깊이는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대체로 깊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에서 전문분야의 정보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대체로 바다의 얕음에 어느 정도 동의할 것이다. 검색엔진에 ‘주택건설’, ‘건설’ 또는 ‘주택’을 검색어로 택하고 실행해 보면 수천개의 관련 웹 페이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더라도 바다의 넓이가 엄청나게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바다는 시간에 따라 더욱 넓어져 갈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망망대해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염두에 두었던 정보를 구하기 힘들 뿐 아니라 설사





구하더라도 그 깊이가 매우 얇은데에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항해에 나선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하게 된다.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문제를 천착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번째 문제로 사이트의 난립이다. 비슷비슷한 정보센터(주택건설부분의 사이트를 보면 명칭이 정보센터인 곳도 많지만 설사 이름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은 이 분야의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려는 정보센터로 보인다)들이 유사하거나 같은 정보를 나열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 어느 정도 통폐합이 되거나 사이트별로 특성화가 되어야만 혼란이 줄어들 것이다.

두번째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 이

것은 집을 사거나 팔기 위해 부동산정보에 접해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정보를 수집한 사람이나 기관은 차치하더라도 정보입수 날짜나 방법 등은 이용자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도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사이트들이 정보의 양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확성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다. 심지어는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지 못한 채 정보를 중계하는데 급급하여 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에 신뢰를 주는 일이 중요하다.

세번째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정보센터들이 인터넷을 위한 정보제공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점이다. 오프라인에서 이미 생성된 정보를 전자문서화하여 온라인에 띄워 놓으면 된다는 생각이 많은 사이트에서 보이는 전략이다. 따라서 온라



정보센터가 세워졌을 때 한가지 문제는 정보의 가공력이다. 특히 일반인을 위해 정보를 공급할 경우에는 센터내에서 적절한 가공, 다시 말해 정보의 해석을 거치지 않으면 일반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이를 위해서는 센터내에 전문인력이 여러 명 상주하고 있어서 정보를 이용하기 쉽게 가공해야 할 것이다.

인에 투입되는 인원은 거의 없거나 최소한도로 제한된다. 온라인만을 위한 어떤 기획이 있어 인력과 정보수집비가 투입된 프로젝트가 있었는지 많은 정보센터들에게 묻고 싶다. 온라인의 장점은 무공간성과 즉시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과 돈이 필요하다.

주

택건설 부문은 이론과 실무 공히 쇄신이 일어나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정보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자기의 실무에 맞게 정보를 구한다는 것이 쉬운 과제는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공간을 이용한 주택건설전문 정보센터가 세워져야 한다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건설 정보센터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 한마디로 정보의 수집, 가공 및 확산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다의 넓이도 넓어야하고 깊이도 깊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양과 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분야별 사이트의 개설이 답일 수 있다. 단일규모의 방대한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소분야를 깊이 천착할 수 있는 소규모 정보센터들의 체계적 수립이 필요하게 된다.

주택건설분야를 다시 분류한다면 이론·설계·시공·관리의 업무분류도 있었고, 설계자·시공자·연구자·일반인(전문가·일반인)의 역할분류

도 있을 수 있고, 아파트·주택·주택단지의 대상 분류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실무자·이론가·학생·평생교육인의 분류도 생각할 수 있다. 어떤 분류든지 이에 대응하는 사이트들이 체계적으로 개설되어 전체를 이루도록 연계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건설에서 다루기 어려운 고급정보는 설계도면이나 사진정보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그 용량이 클 뿐 아니라 전송에서도 방식차가 달라서 다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보는 특수 사이트로 분리하여 공급하지 않으면 백화점식 제너럴 사이트에서는 커다란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센터가 세워졌을 때 한가지 문제는 정보의 가공력이다. 특히 일반인을 위해 정보를 공급할 경우에는 센터내에서 적절한 가공, 다시 말해 정보의 해석을 거치지 않으면 일반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이를 위해서는 센터내에 전문인력이 여러 명 상주하고 있어서 정보를 이용하기 쉽게 가공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시대와 아울러 현대는 평생교육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공부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직장을 갖건 자영업을 하건 전공분야에서 새로운 정보에 접하고 이를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하였고 주택건설부문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시대의 요청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잘 만들어진 인터넷 정보센터가 꼭 필요하다. ☺